

대행 스님



# 한생각 잘하면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전체가 무너진다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어 보세요. 항상 그렇게 가다듬고 관하는 겁니다. 조상이니 부처니 따로따로 두지 말고 마음으로 우주 삼천대천세계, 사생과 더불어 우리 모든 생활 자체를 한마음으로 둥글려서 내면세계 내 마음 깊은 속에 무겁게 놓고 관하세요. 그러면 잡념이 없습니다. 잡념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 나는 거지 그것이 괜히 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한 잡념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묘법이라고도 합니다. 그걸 끊으려 한다고 끊어지나요? 다들 잘 가다듬었어요? 허허허…. 난 웃으면서도, 좋아서 웃을 것도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또 울 것도 없고요.

우리가 한자리를 했는데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최초에 설하신 사제법, 사성제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고집멸도(苦集滅道) 사성제 중에 고 하나만 없앤다면 집도, 멸도, 도도 없습니다. 왜 반야심경에 '색(色)이 공(空)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런 뜻을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는, 고덩어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고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길어요. 그런데 고 하나만 없앤다면, 그 도리를 안다면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어요. 이 도리를 아셔야 돼요.

절에 다니면서 밥 놓고 떡 놓고 빌면서 도깨비장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소꿉장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아신다면 땅을 두드리고 울어도 시원치 않아요! 그리고 일 초가 따로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 살림살이를 찰나찰나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걸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이 고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생이 다 그렇죠. 사생이다 하면 벌레까지도 들어가죠. 저 무정물도 다 들어가고요. 그러니 그것을 모두 따진다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차원이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요것부터 얘기하고 그 고덩어리에 대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억겁을 거쳐서 인간까지 되어 온 과정을 보면, 지수화풍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생명이 생겼고, 그 생명이 생김으로써 수없이 거듭거듭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된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살던 의식 자체에 습과 욕심이 인과로서 박혀 있는 거죠. 원수를 졌든 안 졌든, 선이든 악이든, 수없는 나날을 거듭거듭 살아오면서 인연 지은 게 바로 이 몸뚱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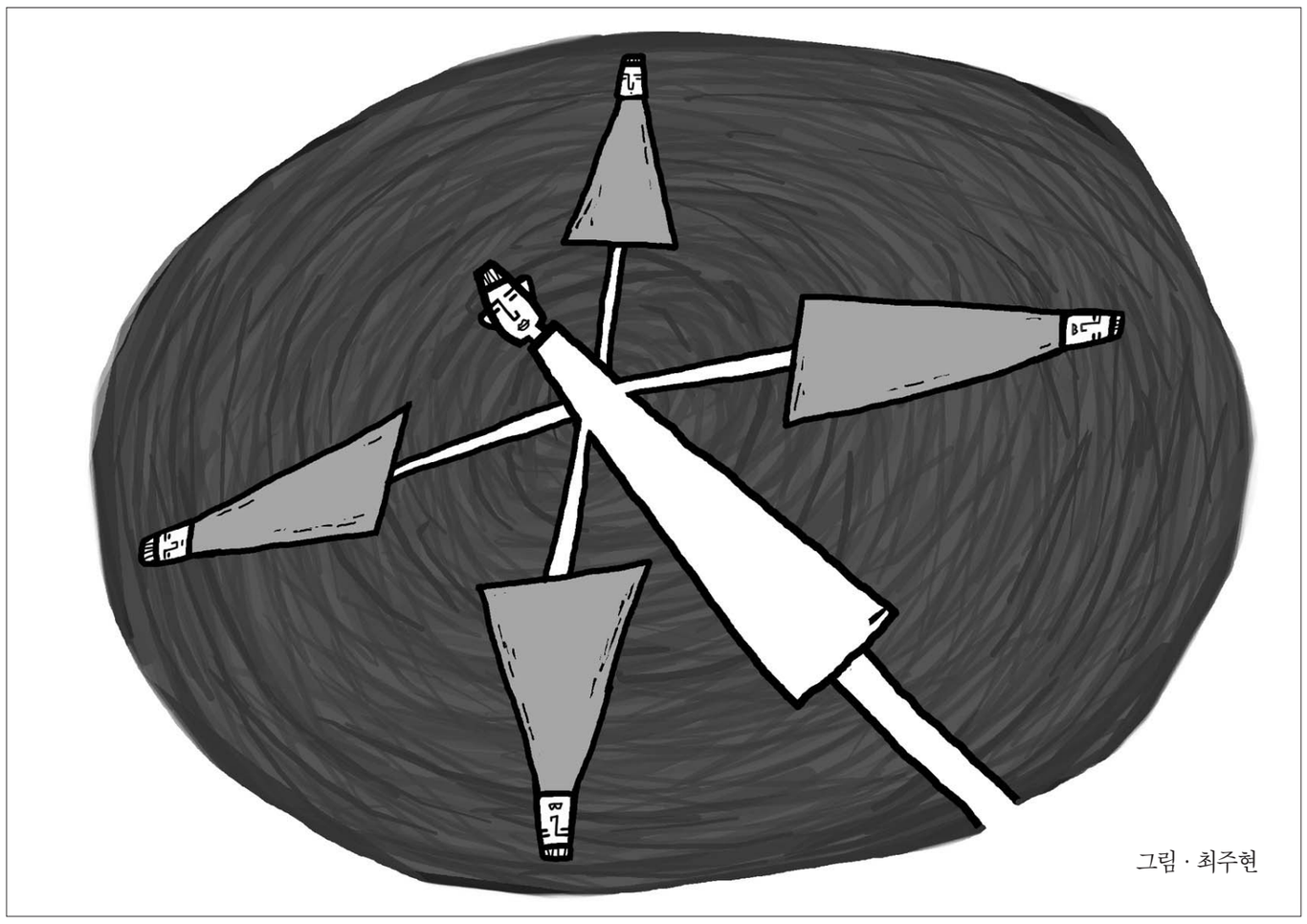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런데 말 못할 일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해 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하고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자기가 마음으로 관할 때에 진실로 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서 진정 뭐가 뭔지 모른다면 절실하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세포에, 오장 육부에 정맥 동맥을 통해서 두뇌를 통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이치가 하나의…,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그 뒷받침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임신을 하려면 엄마 아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음과 양이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인연 따라서 혼백이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되지요. 이 세상은 과일도 그렇고 상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인연 따라 모두 모이죠? 그와 같이 인연 따라서 혼백도 거기에 접근을 하면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삼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음과 양, 그리고 나의 근본에 부합된 마음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래 근본을 가지고 거기에 접근한 그 사람의 인과에 의해서 수십억 마리가 거기 모입니다. 그럼 수십억 마리가 인과에 의해서, 유전에 의해서, 업보에 의해서 수없이 거기 모이는데 그 하나하나가 자기 인연 따라서 만난 바로 자기 중생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숫자가,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자기 인과로 온 겁니다. 업보로 온 거고 유전으로 온 거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몸뚱이 속의 그것들은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아서 이렇게 인간 한 덩어리를 이룬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왜 고덩어리라고 하는가? 일 초 일 초 바뀌지면서 병도 나게 하고 수없이 나오게 합니다. 악의 업보로 인연이 된 거는 거기에서 수없이 돌아가면서 '내가 원수 갚아야지.' 하고 때로는 아프게도 만들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만들고, 때로는 우환이 오게도 만들고 때로는 웃게도 만들고, 어떤 때에는 싸움을 하게도 만들고 어떤 때에는 선의 인연이 거기에 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도 만듭니다. 이렇게도 돌아가고 저렇게도 돌아가고 그러는 원인이 여러분 몸뚱이 속에 수십억 마리가 지금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안에서만 그러냐? 마음은 체가 없어서 바깥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연방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듭니다. 그런다면 바깥의 일이 될 것도 안돼요, 또. 이게 인과고 업보예요. 그런데 그것이 딴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전부 나에게서 직접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입을 통해서 말도 그놈들한테서 나오는 거, 생각하게 하는 것도 그놈들한테, 전부 그놈들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또 그놈들이 아니라면 이 육체를 쓰고 있을 수도 없고 그놈들이 아니라면 부처가 될 수도 없습니다. 참 묘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 나오는 것이, 거듭거듭 찰나찰나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이 고정됨이 없죠.

그래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육조 스님께서는 또 '본래 자성은 움죽거리지 않으면서도 만법을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하셨습니다. 요걸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팔랑개비는 대를 쥐니까 팔랑개비가 돌아가고 대가 아니라면 팔랑개비가 있을 수가 없죠. 그와 같이 본래자성불의 그 중심은, 주장자는 바로 팔랑개비대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주인공입니다. 주인을 막대기라고 한다면 팔랑개비는 육신입니다. 이 모두가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는데, 바람과 팔랑개비와 대가 자꾸 돌아가는데, 이게 삼위일체로 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는 하나로 돌아간다. 그 하나로 돌아가는 건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러니 그 하나마저도 이름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부처니라. 그리고 공했느니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공해서 돌아가는 것을 그대로 아시죠? 모르십니까, 아십니까? 남편 만나면 금방 마음, 행, 말이 동시에 자동적으로 "여보!" 이렇게 나오죠? 허허

☞26면으로 계속


## 불교 전통의식 3기 수강생 모집

**단기 속성 - 3개월 과정**
**(범음 범패 - 1년 과정)**

불광불교대학에서는 예불, 불공, 천도재 등 각 사찰에서 행해지는
불교의식을 교육하고자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 안내**
- 입학자격 : 스님, 남 • 녀 재가 불자 및 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사찰 및 포교원 개원 하실 분(종단 등록 가능), 수료 후 법사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분
  **《초심자 및 재가 불자 환영》**
- 개강일시 : **2010년 10월 6일(수요일) 오후 2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 토요일 오후 2시 ~ 5시**
- 강의장소 : 도동 불광불교대학

**2. 교육내용**
- ▸단기 속성(3개월)과정 : 도량석, 조석종성, 상단예불, 각단예불, 신중청, 관음청, 지장청 등
  천도재, 49재, 시달림, 관음시식, 화엄시식 (사물 - 북, 요령, 목탁)
- ▸1년(법사과정) 과정 : 천도의식(범음범패) - 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 옹호게, 상단권공 및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특강 : 승무, 살풀이(무형문화제 제7호 전수자 류희연 개인지도)**

※ 초심자에게 불교전통의식 방법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함

**3. 접 수 처 :** 불광불교대학 종무소 (053-986-1080)

**4.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도동 불광불교대학**
대구광역시 동구 도동 44(팔공IC 5분거리) ☎ 053)986-1080 / 010-5470-8730

##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 석가모니 부처님 |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 5-2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